

서울시 9급 총평

영역	문항 번호	내용	난이도
음운론+표준발음	5	된소리되기(경음화)	하
형태론	2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	중
	9	단어의 기본형과 활용	상
문장론	6	올바른 문장 표현+맞춤법	중
한글 맞춤법	8	띄어쓰기	중
	10	적절한 맞춤법 표기	상
한자	7	문학+한자성어	중
	19	한자어 표기	중
문학	7	사설시조 <나모도 바히도도~>	중
	14	현대소설, <아홉 쉼의 구두로 남은 사내>	중
	16	개화기 가사, <애국가>	중
	18	현대시, <독을 차고> + 시조 4수	중
비문학	3	나바호인과 관련된 내용 추론하기	하
	4	상황에 따른 발화의 의미	하
	11	빈 곳에 들어갈 기자의 질문	중
	12	글의 주장 - 핵심 내용 찾기	중
	13	내용일치 - 독서와 다독	하
	15	내용일치+추론-동양의 명암법	상
	17	내용일치 - 팸리스트	상
	20	내용일치+추론 - 미래예측시스템	중

시험 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2019 국가직 7급의 국어는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어휘 8, 문학 4, 비문학 8문항으로 비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시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시작이 부족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시작이 부족했으므로 비교적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지난 지방직 7급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보다는 쉬운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문법의 경우, 한글맞춤법의 비중이 컸습니다. 띄어쓰기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적절한 표기법 찾기 문제에서는 헛갈리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당황하며 어렵게 답을 찾았을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기출 단어들을 많이 조합해 놓았으므로 평소에도 기출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자의 경우 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자어' 문제 자체도 어휘가 어렵지 않았으며 실제로 답도 '常識'이라는 단어를 찾는 상식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한자성어의 경우에도 문학 작품의 해석만 가능했다면 선택지 자체는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문학의 경우 기초 문학의 작품들이 출제되어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대비했던 가사 작품이 아닌, '개화기 가사'를 출제하여,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현대시 문제는 동일한 정서의 시조 찾기가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 해석과 함께 시조 4개를 해석해야 하므로 시간을 다소 투자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문학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낯선 작품이 아닌, 기본 작품들이었으므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본 작품들을 숙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측했던 바와 같이 **비문학**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국가직은 점차 비문학의 길이도 길어지고, 문항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들은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었으나, 내용파악 후 추론하여 답을 찾아가는 문제의 경우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 마음이 급한 시험에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문학은 요령이 없습니다. 시간을 줄이려는 목표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암기식 사고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독해 훈련'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문학의 비중은 커질 것이니, 성실하게 비문학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암기식 문제보다는 자료해석과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시험에 맞게 반드시 기출을 분석해서 본인에 준비하는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경향을 살펴시고, 기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이입니다.”에서의 ‘-세요’, ‘-습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 해설 ②

- ① ‘말씀’은 말의 높임으로도, 자신이 한 말의 낮춤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말씀’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당신’은 2인칭 당신도 있지만,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의 높임표현으로 사용한다. 제시된 문장의 ‘할아버지 자신의 장서’의 의미이므로, 3인칭 재귀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나라 사이에 우열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라’란 표현을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과/회사’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선어말어미 ‘-시-’의 경우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직접높임도 가능하지만 주어와 관련된 신체의 일부이거나 소유물 등을 간접높임 수도 있다. 이를 ‘간접높임’이라 한다. ‘아버지는 책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책이 있으세요’와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간접높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선택지 ④의 내용은 과도한 간접높임이므로 잘못된 표현이며, 객체를 높이는 표현도 아니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 해설 ②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①, ③의 경우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파생접사가 아닌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④의 경우는 ‘낚시’라는 명사에 접미사 ‘-질’이 붙어 품사를 바꾸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답-’은 ‘정’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품사 전성시키므로 적절한 답이다.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스태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끄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이네.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지? 영양실조에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색이 만연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이네.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 해설 ③

1분단의 셋째 줄,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③의 답을 추론할 수 있다. 나바호인은 현재의 문제만을 인식하므로 미래의 가치가 있는 사업에는 긍정적일 수가 없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 해설 ③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라는 설명을 통해 ③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5. ㉠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 | | |
|--------|------|-------|-----|
| ㉠ | ㉡ | ㉢ | ㉣ |
| ① 잡고 | 담고 | 갈 곳 | 하늘소 |
| ② 받고 | 앉더라 | 발전 | 물동이 |
| ③ 놓습니다 | 삶더라 | 열 군데 | 절정 |
| ④ 먹고 | 껴안더라 | 어찌할 바 | 결석 |

✓ 해설 ④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조항들을 보기에 제공해 주었다. 해당되는 예를 찾는 것으로

㉠은 ㄱ, ㄷ, ㅂ뒤에서 이므로 ‘먹고[먹꼬]’

㉡은 비음 뒤이므로 ‘껴안더라[껴안떠라]’

㉢관형사형 전성어미 ‘-ㄹ’뒤 이므로 ‘어찌할 바[어찌할빠]’

㉣은 한자어 ‘ㄹ’ 뒤이므로 ‘결석[결썩]’으로 ④가 적절하다.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 해설 ③

① ‘가능한’뒤에 의존명사 ‘한’이 와야 하므로 ‘가능한 한’이 적절하다.

② 서술어 ‘뒤지지 않는다’는 ‘-에, -에게’와 호응해야 하는데, 부사어 ‘그들’은 사람이므로 ‘그들에게’로 수정해야 한다.

③ 수업 시간은 길이가 아닌, ‘양’이므로 ‘늘리다’표현은 올바르다.

④ ‘효과적이지 않다.’의 구성으로 보조 형용사 ‘않다’는 ‘않는’의 활용을 할 수 없으므로 ‘않은’으로 수정해야 한다.

7.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모도 바위들도 업슨 뫼헤 매게 췌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짓고 치도 싸지고 바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른디 四面이 거머어득 저못 天地寂寞 가지노
 을 전느디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현 내 안히야 엇다가 ㄹ을허리오.

- ① 孤子單身
- ② 螳螂拒轍
- ③ 磨杵作針
- ④ 百尺竿頭

✓ 해설 ④

‘나모도 바위들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가토리’의 마음보다, ‘큰 바다에 모든 것을 잃고, 바람과 물결도 사나운데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보다도 엇그제 이별한 화자의 마음이 더 슬프다고 표현하는 사실시조이다. 과장법과 열거법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은 ‘가토리’와 ‘도사공’의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는 것이므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④百尺竿頭(백척간두)가 적절하다.

- ① 孤子單身(고혈단신): 피붙이가 전혀 없는 외로운 몸.
- ② 螳螂拒轍(당랑거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磨杵作針(마저작침):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이 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함. 끈기 있게 학문이나 일에 힘씀.

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 ②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 해설 ①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또한 어미 ‘-ㄹ밖에’는 앞말에 붙인다.

- ② 의존명사 ‘만’은 앞말과 띄어 쓴다. ‘한잔하다’는 동사로 ‘간단하게 한 차례 차나 술 따위를 마시다’의 의미로 붙여 쓴다.
- ③ ‘텐데’는 ‘터(의존 명사)+ 이(서술격 조사)+ -ㄴ데(어미)’의 결합이다. 즉, ‘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할 텐데’
- ④ ‘태권도’위에 ‘에서’는 조사이므로 뒤에 오는 ‘만큼’도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권도에서만큼은’이 되어야 한다.

9.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 붓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 불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 붓다)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 (→ 붓다)

✓ 해설 ②

붓다 ①: 얼굴이 붓다
 붓다 ②: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분다: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 살이 찌다

② 물이 '붓다'가 기본형이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게 활용한 표현이다.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② 신제품을 **선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주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 ④ 그 발가숭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렀다가 물속에 텀뎡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 해설 ①

① '~므로'의 의미가 있는 어미 '-으매'의 결합으로 적절하다.
 ② '선뵈어도'를 축약하면 '선뵈어도'가 된다.
 ③ '야속하더군요'를 축약하면 '야속더군요'가 적절하다.
 ④ '쳐박히다'의 접두사 '쳐'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_____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했지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인지요?
-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해설 ④

기자의 질문은 찾는 문제는 곧 작가의 대답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문제이다. 작가의 대답 처음이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이라고 시작하므로 본인의 가장 시간을 할애했던 것, 즉 주력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그러한 것들이 '분명 작가 수업에도 보탬이 되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했다'고 했으므로 나에게 주력했고, 그러한 도움을 준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④가 적절하다.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 해설 ③

첫 줄에서 사람의 몸의 정신적인 부분을 제하면 본능이 남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마지막 줄에도 결론적으로 본능만 남은 인간은 '짐승'이라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③이 적절하다.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을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 해설 ①

6번째 문장에서,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고 자식의 교육은 사람마다 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현대어 풀이다.

<애국가>, 최돈성
 대조선국이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된 첫째이니, (조선의) 자주 독립을 기뻐하세.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깃발을 높이 다세.
 나라를 도울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하세.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고 자식의 교육은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게 하려면 나라를 먼저 보전하세.
 우리 나라 보전하기를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지 (거기에 대한) 원망은 없네.
 국가가 태평하고 집이 편안하고 즐겁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쓰세.
 우리 나라가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느님께.
 문명 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인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

- ①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이다.

✓ 해설 ③

2문단에서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 시설이 부재하였다' 그래서 '하천을 따라 주거가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문단의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 확보가 도시 형성의 조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③ 도시 주거 요건의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은 아니다. 현대의 도시 요건이 자동차 도로이고 과거의 주거 요건이 상하 시설이므로 이 두가지가 결합된 ③은 적절하지 못하다.

